

‘오월의 꽃, 오늘의 빛’...대한민국 민주주의 대축제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휴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민주주의 대축제’가 펼쳐진다. ▶관련기사 5·7면

특히 제46주년 5·18 기념식이 복원 작업을 끝내고 정식 개관하는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려 12·3 내란 사태를 극복한 원동력인 광주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난장’부터 ‘RUN5·18’까지 다채

14일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행사 슬로건인 ‘오월의 꽃, 오늘의 빛’에 맞춰 16일부터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16일 오전 11시부터 금남로와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시민난장이다. 1980년 5월 광주 공동체의 나눔과 대동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난장은 오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홍보·체험 부스와 오월 굿즈, 주먹밥 나눔 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오후 4시부터는 5·18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금남로로 향했던 ‘민족민주화성회’를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 행렬이 광주고등학교와 광주역, 광주교, 북동성당에서 각각 출발한다. 각계각층 시민 2천여명은 금남로를 거쳐 5·18민주광장 일대로 집결한다.

오후 5시18분부터는 ‘RUN5·18-도청 가는 길’이 시작된다. 참가자 1천500여명은 전남대학교

16일 마라톤·평화대행진·민주의 밤

17일 전야제...국립묘지서 추모식도

18일 옛 전남도청서 기념식·개관식

대운동장에서 5·18민주광장까지 약 5.18km의 ‘오월길’을 달리며 광주역 광장 등 사적지를 눈에 담는다. 같은 시각 5·18민주광장 분수대 특설무대에서는 공연 중심의 대규모 시민축제의인 ‘민주의 밤-충전하라! 민주야 힘!’이 열린다. 행사는 오후 9시까지 이어지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어린이 합창단·팝페라·시립합극단·박성연밴드 등의 공연, ‘광주수월래’ 대동 한마당 순으로 진행된다.

◇오월 영령 기억·계승 추모행사 염수

17일 오전 9시30분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주최·주관으로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염수된다.

추모제 후에는 민주화 열사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추모식이 이어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난장은 17일에도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시작되며 오후 5시18분부터 민주광장에서 기념

행사의 꽃인 전야제가 시작된다.

올해 전야제는 마당극 형식으로 연극·무용·음악 공연 등을 통해 내란 완전 단죄와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한 핵심 원동력은 오월 정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세월호·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하며 광주시민들과 함께 국가로부터 겪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복원 마친 옛 전남도청 정식 개관

18일 오전 11시 5·18민주광장에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된다. 정부 기념일 지정 이후 5·18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올해 기념식은 5·18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복원 공사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관하는 날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기념식에는 2천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이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최근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헌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무산시킨 ‘장본인’인 만큼 이에 항의하는 지역민과의 물리적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은 이날 오후 2시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이연상 기자



5·18 추모 열기 고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나흘 앞둔 14일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5·18민주묘지서 체험학습을 나온 학생들이 묘지를 둘러보고 있다. /조영권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 첫 선거 본격화

6·3 지방선거 D-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초기 행정 체제를 이끌 미래 수장들을 선출하는 첫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14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날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초대 특별시장·시의원·교육감 등 선출

동시 실시 광산을 보궐선거 경쟁 가열

오늘까지 후보 등록 21일부터 선거운동

1명, 통합특별시교육감 1명, 통합특별시의원 91명을 선출한다. 통합특별시의원 선거는 전체 70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79명과 비례대표 12명을 뽑는다. 광주에서는 5개 자치구장장과 73명의 기초의원, 전남에서는 22개 시장·군수와 247명의 기초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진보당 이종욱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무소속 김광만 후보 간 5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광역의원 선거는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을 결정하

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통합 이후 의회 운영과 지역대표성, 광주·전남 간 균형문제가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특히 광주 일부 지역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돼 민주당 후보들과 야권 후보 간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민형배 후보의 통합특별시장 출마로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 임문영 후보,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 진보당 전주연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무소속 구분기 후보 간 6파전이 예상된다.

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는 강숙영 김대중재단 전남지부회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간 4자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 등록은 15일 마감되며 선관위는 등록 후보자 명단을 최종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다. /변은진 기자

Today

‘하려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



16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기념

광주시민 5·18시낭송회

■ 일시: 2026년 5월 29일(금) 오후 3시 ■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5층)

광주매일신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광주시민 5·18 시낭송회’를 개최합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매일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재능시낭송협회 광주지부 주관으로 5월 29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광주시민 5·18 시낭송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을 기념하고 송고한 뜻을 널리 전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이날 시낭송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담은 다양한 시를 낭송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합니다.

시낭송에는 재능시낭송협회 광주지부 회원들이 주축이 돼 5·18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광주매일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최

5·18기념재단

광주매일신문

주관

광주매일신문

협찬

광주은행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